



- 특 집 _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 기획 _ 윤석열 대통령 ‘재외동포청 설립’ 재차 약속
- 화제 1 _ ‘헤이그 밀사’ 이위중 증손녀 “잊힌 고려인 독립유공자 찾아야”
- 화제 2 _ 항일무장투쟁 이끈 김경천 장군 손녀 “한국은 또 하나의 조국”



윤석열 대통령 5월 11일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격려사



윤석열
대통령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셔서 취임식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살아가는 동포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선거기간 제가 동포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발전 하는 지구촌 한민족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같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동포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입 10년이 지난 재외선거 제도를 운용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자녀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한국어 역사, 문화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정치·경제·언론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이 될 차세대 인재 발굴과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국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 세대, 배경의 재외 동포들이 모국을 중심으로 하나로 어우러지고 세계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고 글로벌리더 국가를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땀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 | |
|------------|---|
| 02 권두언 | 윤석열 대통령 5월 11일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격려사 |
| 04 특집 |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
| 06 기획 | 윤석열 대통령 '재외동포청 설립' 재차 약속 |
| 08 화제_1 | '헤이그 밀사' 이위중 증손녀 "잊힌 고려인 독립유공자 찾아야" |
| 09 화제_2 | 항일무장투쟁 이끈 김경천 장군 손녀 "한국은 또 하나의 조국" |
| 10 한민족 공감 | 미 뉴욕주 의회, '김치의 날' 제정 기념행사 개최 |
| 12 글로벌 코리아 | 미국 한상 대부 흥명기 기념일 추진된다... 한인의원 발의 김선엽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 유미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메이저리그서 시구 |
| 14 주목! 차세대 | 재미동포 출신 가수 알렉사, 미국 NBC 콘테스트 우승 |
| 16 문화유산 | 충주 칠층석탑·고구려비... 삼국시대 '각축의 역사' 보여주는 중원의 랜드마크 |
| 18 동포소식 | 박항서 감독 "어려워도 포기 말고 꿈 향해 도전해야" 외 |
| 20 유공 동포 | 카자흐 고려인 원로 배우 겸 감독 이 올레그, 국가 훈장 수훈 |
| 21 지구촌 통신원 | 미국 뉴욕서 K 실감콘텐츠 체험 전시회 |
| 22 OKF 뉴스 |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4~7일 인천서 개최 외 |
| 24 동포 캘린더 | 주사할린한인협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한인 1세 위한 쉼터 개관 외 |
| 25 기고문 | 우크라이나에서의 30년 김석원 키이우 국립대 교수 |
| 26 재단공지 |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온라인 연수' 신청하세요 외 |



발행인: 김성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자유·인권·공정·연대’ 강조…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에 빠트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5월 10일 공식 취임해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 국민, 재외동포 등 4만1천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16분 분량의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 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반(反)지성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번영·풍요·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 취약한 평화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

자유와 가치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와 가치를



1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성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문 열어두겠다…

비핵화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 개선할 담대한 계획 준비”

안보 이슈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2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일 0시에 국군통수권 인수하고 군 대비태세 점검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고, 북한의 군사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임기 첫날 밤을 보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첫 출근길에 나섰다. 곧바로 동작동 현충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1호 안건으로는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참석차 한 국을 방문한 주요국 외교사절과도 연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국회 본관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한 뒤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



3



4

1.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 서명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결재였다.
2. 취임 선서하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3. 5월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통수권 인수하는 윤석열 대통령(화면 위 왼쪽)
4.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내 현충탑 앞에서 묵념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 ‘재외동포청 설립’ 재차 약속

취임식 다음 날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하루 뒤인 5월 11일 취임식 **윤**에 참석했던 재외동포들을 만나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행사의 격려사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정책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면서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개한 외교·안보 분야 20대 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표방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



2



3

김부겸 총리 “정부, 한인동포 사회 발전 위해 외교적 노력 다할 것”

이날 리셉션을 주최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환영사에서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각 나라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세계 어디서든 우리 재외동포가 한민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인류사적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상승한 최초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는 BTS에서 재미동포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까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상상력을 가진 작품들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한없이 열망하셨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나라’가 드디어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것은 똘똘 뭉쳐서 함께 이루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민족이 가진 끈끈한 연대의 정신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자 문화 사절로서 조국의 이름을 드높여준 재외동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밤 12시를 기해 사임한 김 총리 이 연설은 그의 마지막 외부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중문 외교부 제2차관,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여건이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 등도 참석했다. [\[참\]](#)

1.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3.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과제 목표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도입 10년이 지난 재외 선거제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면서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인재 발굴·교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살아가는 동포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날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재외동포 1천100여 명과 국내 인사 190여 명이 참석했다. 동포들은 자비를 들여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연단 아래에서는 ‘석열이 형’ 등의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헤이그 밀사’ 이위중 증손녀 “잊힌 고려인 독립유공자 찾아야”

율리아 피스쿨로바 러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고려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3~4세가 되면서 조상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일부는 선조들의 독립운동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에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구한말 일제의 국권 침탈 아욕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고종의 밀사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다가 일제의 방해공작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자 전세계에 일제의 침략을 고발하고 독립을 외쳤던 이위중 열사의 증손녀인 율리아 피스쿨로바(53)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잊힌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알리는 일은 역사바로세우기”라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국립대를 나온 역사학자로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 회장이기도 한 그녀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했다.

피스쿨로바 씨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선조 중에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많은데, 언제 어디서 죽었고 그 후손은 어디에 사는지 알려지지 않아 묻힌 사례가 많다”며 “협회는 후손을 찾아 서훈을 전달하고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위중 열사의 부친으로 초대 러시아 공사를 지낸 이범진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자결했다. 둘째 아들이었던 이위중 열사는 헤이그 파견 이후에는 러시아 장교가 돼 무력투쟁을 벌였으나, 이후 행방불명됐다.

증조부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벌였고, 행방불명 이후의 행적은 어떠한지 밝히는데 앞장서 온 피스쿨로바 씨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이범진’ 등의 책을 썼다. 2020년에는 협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해 고려인사회와 모국에 배포했다. 그는 “책 배포를 계기로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이영호 열사의 후손이 카자흐스탄에 거



독립운동가 이위중 열사의 증손녀 율리아 피스쿨로바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 회장이 선조의 행적을 발굴해 쓴 책과 협회 25주년사 사진집 등을 소개하고 있다(왼쪽). ‘헤이그 밀사’ 이위중 열사의 생전 모습

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서훈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곳곳에 있는 독립유공자후손협회, 고려인협회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현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방한 기간 이범진·이위중 열사의 저택이 있던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 기념 비석을 방문한 피스쿨로바 씨는 “모국에서 선조를 기릴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라며 “이범진 열사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동상을 세우는 일을 추진 중인데, 얼마 전 시가 허가를 내줘서 고무적”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모국의 독립유공자 단체 등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차세대의 모국 체험 등을 추진해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항일무장투쟁 이끈 김경천 장군 손녀 “한국은 또 하나의 조국”

필란스카야 갈리나 “한국 정부 서훈으로 잊었던 자긍심 되찾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조부에게 한국 정부가 훈장을 수여해 준다
독

며 연락이 왔을 때 가족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죠. 잊었던 자긍심도 되찾아 한국은 제게 또 하나의 조국이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옛소련 시베리아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 수많은 전과를 올렸던 김경천 장군의 손녀인 필란스카야 갈리나(59)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 독립운동에 헌신한 역사를 오롯이 인정하고 기록하는 일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강조했다.

모스크바에서 의대를 나와 병원 의사로 근무하다 은퇴하고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5월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했다. 2015년 한국 국적도 취득한 그는 “선조가 꿈에 그리던 한국은 마음의 고향 같아 늘 푸근함을 느낀다”며 “며칠 전 조부의 집터가 있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기념 비석을 방문했는데 뜨거운 마음이 치솟아 울컥했다”고 했다.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김 장군은 부친이 대한제국의 포병 보급 부대장을 지낸 무관 집안의 후손이다. 군인의 길을 걷던 형들을 따라 1911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기병 장교로 복무하며 망국의 한을 품고 살았던 그는 1919년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아 만주로가 독립 전쟁에 뛰어들었다.

1920년 만주 봉천(현 랴오닝성 선양)에 세운 항일독립군 장교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연해주로 옮겨 항일무장 부대를 결성해 이끌면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백마를 타고 600명에 달하는 기병부대를 이끌며 수백 명의 일본군을 사살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중국 마적단과도 싸웠으며, 러시아의 적군과 연합해 일본군의 지원으로 활동하는 백군을 상대로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일본군 사령부는 ‘김경천 부대를 만나면 싸우지 말고 피해도 된다’는 지령을 내릴 정도로 그 용맹함을 인정 받았다.

학계에서는 북한 김일성 주석이 김 장군의 항일투쟁 경력과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장군은 레닌의 사망 후 집권한 스탈린에 의해 정치범으로 몰린 뒤 강제수용소에서



시베리아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장군의 손녀 필란스카야 갈리나 씨가 김 장군이 남긴 '경천일록' 러시아 번역본을 소개하고 있다(왼쪽). 김경천 장군의 생전 모습

노역에 시달리다가 1942년 숨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독립운동사, 이념·사상과 별개로 기록해야... 젊은 세대에 알리는 일 중요”

갈리나 씨는 “한때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조부가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보다, 그가 어떻게 일본군과 싸워왔는지,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는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부가 독립운동 당시 극동지방 열차에서 추적하던 일본인 스파이를 따돌렸던 일, 일제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조부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던 조모의 이야기 등을 듣고 자랐다”며 “그런 일들이 책이나 설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 어려서는 남들이 믿어줄까 싶었는데, 모국에서 서훈하고 역사를 조명해주어 이제는 어깨를 펴고 산다”고 말했다.

김 장군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이 후손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그는 “잊힌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역사를 후대의 젊은 세대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독립유공자후손협회와 각지의 고려인협회가 협력해 역사를 복원하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

미 뉴욕주 의회, '김치의 날' 제정 기념행사 개최

캘리포니아주 · 버지니아주 이어 세 번째로 '김치의 날' 제정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음식 문화를 자랑하는 미국 뉴욕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행사가 5월 24일(현지시간) 개최됐다. 이날 뉴욕주의 주도인 올버니에 위치한 뉴욕주 의회가 '김치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매년 11월 22일로 정해진 '김치의 날'은 2020년 한국 정부가 김치 산업 진흥, 김치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 뉴욕주도 같은 날을 기념일로 지키게 된 것이다.

뉴욕주는 앞서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시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방청객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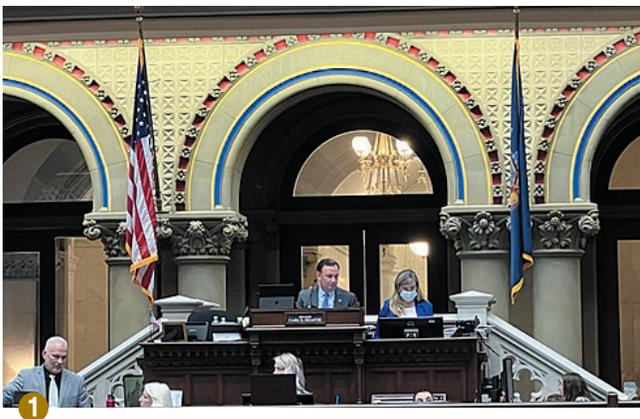
뉴욕주 의회는 이에 따라 이날 회의 도중 다시 한번 결의안 내용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인들에 의해 미국에 소개된 이후 한국인이 아닌 뉴욕주민들에게도 사랑받게 된 건강식품 김치의 역사를 기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치는 2천 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한 전통 음식이고,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소개도 포함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크리스털 피플스-스트로크스 의원은 이날 회의를 방청한 정병화 뉴욕 주재 한국 총영사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을 의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주 의회가 특정 음식에 대한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주의회에 따르면 아시아 음식 중에서는 일본의 스시와 베트남 쌀국수 등 미국 식문화에 이미 정착한 음식 외에는 기념일이 없다.

결의안 주도 론 김 의원 "다양한 문화 수용의 좋은 사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계 정치인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날 미국 언론을 상대로 별도의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김치의 날' 제정 의미를 강조했다. 뉴욕시 플러싱을 지역구로 하는 김 의원은 "미국과 뉴욕주의 각종 식당 메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김치와 김치를 사용한 음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계가 아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김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다양한 문화 수용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7세의 나이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겪었던 인종 차별도 회상했다. 그는 "어릴 때는 학교에 김치를 가져가는 것은 꿈도





3



4



5

못 풀 일이었다”며 “냄새가 난다며 놀림을 당해 창피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정계에 입문한 뒤에는 그 경험이 더욱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2012년 한국계로서는 최초로 뉴욕주 하원의원이 된 김 의원은 ‘김치의 날’ 제정이 한인 3세 등 어린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체성 지키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가 미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됐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그의 지역구에서 한국계 유권자는 10% 안팎으로, 중국계 유권자보다는 적다.

이날 뉴욕 주의회에는 김치를 홍보하는 aT의 부스도 설치됐다. 또한 뉴욕주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김치를 테마로 한 샐러드와 햄버거 등 시식 행사도 열렸다. 김춘진 aT 사장은 “세계 경제 수도인 뉴욕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것은 한국 김치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뉴저지주, 메릴랜드주 등 미국 전역에서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버지니아주(卍) 의회가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김치의 역사와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김치의 날’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 역시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의 역사와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한국계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대표적 친한파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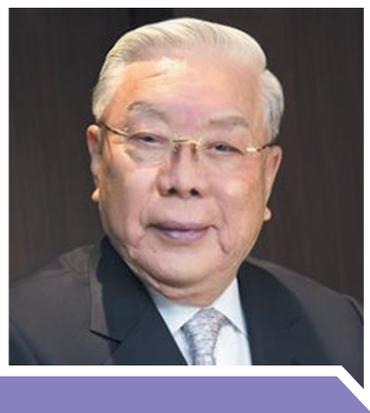
인 새런 쿼크-실바 주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김치는 2020년보다 22.5% 늘어난 2천825만 달러어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남미 아르헨티나 상원도 결의안 가결

이와는 별도로 아르헨티나 상원도 지난해 10월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출석의원 47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여당 소속 마그달레나 솔라리 키타나 상원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한 연설에서 김치가 한국 문화나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보물’과 같은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솔라리 키타나 의원은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를 자세히 언급하며 “김치의 날 제정은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적·사회적 기여를 기리고, 한국과의 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김치의 날’을 매년 11월 22일로 정한 것은 배추와 무 등 주재료에 소금과 양념 채소, 젓갈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11월)가 어우러져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의미에서다. [\[참\]](#)

1.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설명하는 미 뉴욕 주의회
2. 지난 2월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논의하는 미 버지니아 주의회
3. ‘김치의 날’ 제정 주도한 한국계 론 김 미 뉴욕주 하원의원
4. 미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제1회 ‘김치의 날’을 맞아 지난해 11월 22일(현지시간) 로스 앤젤레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김치를 만드는 모습
5.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추진한 솔라리 키타나 상원의원



홍명기 'M&L 홍 재단' 전 이사장



미국 한상 대부 홍명기 기념일 추진된다... 한인의원 발의 캘리포니아주 의회 통과시 안창호 이어 두번째 외국인

미국 한상(韓商)의 대부로 불렸던 홍명기 'M&L 홍 재단' 전 이사장을 기리는 기념일이 현지에서 추진된다. 최석호(미국명 스티븐 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지난해 8월 별세한 홍 전 이사장의 생전 기부 활동을 기리기 위해 주 의회에 '홍명기의 날' 결의안을 발의한 것.

최 의원은 4월 22일 전화 통화에서 "고인의 생일인 6월 20일을 '홍명기의 날'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고인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펼친 수많은 기부활동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 결의안이 통과돼 기념일로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이어 생일을 기리는 두 번째 외국인이 된다"며 "미주 한인 이민 119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다.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전 회장은 1954년 미국에 유학하러 갔다가 정착해 페인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차별을 견디지 못해 박차고 나와 51살의 늦은 나이에 창업해 '아메리칸드림'을 일궜다. 산업·건축용 특수도료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하는 '듀라코트'를 설립해 30년 만에 연 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특수페인트 시장 '톱 5'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1년 사재 1천만 달러(약 124억원)를 털어 '밝은미래재단'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M&L 홍 재단'의 전신)을 설립하고 교육과 장학사업을 펼쳤다. 그는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주도하면서 '리딩 CEO 포럼' 공동의장을 맡아 한국 청년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해외취업 지원 등에 앞장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결의안을 발의한 최석호 의원은 그동안 '김치의 날', '태권도의 날', '미주 한인의 날', '입양한인 보호법' 등 다양한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김선엽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 미국 역사와 이민 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 인정

김선엽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이 '2022 앨리스 아일랜드상'을 받았다. 이 상을 주관하는 전미소수민족연대협의회(NECO)와 앨리스 아일랜드 상 홈페이지(www.eihonors.org)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당초 2020년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상식이 연기되면서 5월 14

일(현지시간) 앨리스 아일랜드 역사박물관에서 상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수석부회장과 회장, 뉴욕한인정치력신장위원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1974년 뉴욕에 이민한 그는 무역회사를 세워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무역업을 했고, 예일대학에 식품 재료를 공급하기도 했다.

앨리스 아일랜드 상은 미국 역사와 이민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1986년 연방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수상자는 연방하원 기록에 남는다. 로널드 레이건,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등이 상을 받았다. 한인으로는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이형노 공인회계사,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명예회장 등이 받았다.

유미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메이저리그서 시구 한국계로 '어머니의 날' 기념 해 시구 나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으로,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가 5월 8일(현지시간)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대 캔자스시티 로열스 경기에서 시구했다. 호건 여사의 시구는 이날 미국 '어머니의 날'(Mother's Day)을 기념해 이뤄졌다. 호건 주지사 부부는 3명의 딸을 두고 있다.

한국계 부인을 둔 이유로 호건 주지사는 '한국 사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호건 주지사 부부는 그간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친한파 인사로 통한다. 이들은 주 정부 차원의 '태권도의 날'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일 지정 등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고, 작년 10월에는 주내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인 엘리콧시티 일대에 코리아타운을 공식 개장하기도 했다. 유미 호건 여사는 메릴랜드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인정받아 2020년 11월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인 동백장을 받은 바 있다.

호건 주지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여온 메릴랜드에서 재선에 성공해 오는 2024년 차기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화당 내 '잠룡'이다. 2023년 1월까지가 임기인 그는 당내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연방 상원 의원으로 나서 상원에서 당의 기반을 공고히 해달라는 강한 압박을 받아 왔지만 이를 고사하며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



'앨리스 아일랜드상' 받은 김선엽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미주한국일보 제공)



유미 호건 여사



재미동포 출신 가수 알렉사, 미국 NBC 콘테스트 우승

K팝 가수 최초 미 대규모 오디션 우승... “기적 같은 선물”

재미동포 출신 K팝 가수 알렉사(Alexa · 26)가 미국 지상파 방송사 NBC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알렉사는 5월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서 방송된 NBC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American Song Contest)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소속사 지비레이블은 “K팝 아티스트가 미국에서 열린 대규모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처음 방송된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는 미국 각 주(州) 등을 대표하는 56명의 도전자가 모여 미국 최고의 히트곡을 차지하고자 경쟁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럽 지역의 국가대항 노래 경연 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북미 리메이크판으로, 유럽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내로라하는 가수들도 여럿 출연한 이 프로그램에서 알렉사는 오클라호마주(州) 대표로 참가했다. 출연자 가운데 유일한 K팝 아티스트인 그는 앞서 경연곡 ‘원더랜드’ (Wonderland)로 현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시청자 투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알렉사는 이날 결승에서 1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700점대 점수를 기록하며 워싱턴의 앨런 스톤, 코네티컷의 마이클 볼튼 등을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원더랜드’로 방송 내내 큰 화제를 모으며 8강과 4강 투표 1위에 오른 데 이어 마침내 최종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기염을 토했다.

알렉사는 우승자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두 얼굴을 부여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알렉사는 소속사를 통해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감사하다. 응원해 주신 많은 분 덕분에 마지막까지 무대에 올랐다. 기적 같은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알렉사의 행보에 외신 반응 역시 뜨거웠다. 이날 미국 유명 매체 빌보드지는 알렉사의 우승 과정을 설명하며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던 켈리 클락슨과 인터뷰를 나눴다. 켈리 클락슨은 빌보드지에 “조카가 K팝 팬이라 이전부터 알렉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알렉사와 같은 무대를 본 적이 없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유명 음악 평론지 NME는 “알렉사는 프로그램 출연 동안 의상, 무대 연출, 안무 등의 부분에서 정교하게 무대를 꾸몄





3



4

다”고 호평했다. 이외에도 미국 CNN, 피플 (People), E-NEWS와 영국 BBC 등이 알렉사의 우승 소식을 다룬 기사를 게재하며 그를 조명했다.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가 방송되는 시간 알렉사는 세계 음원 차트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알렉사는 방송 직후 ‘원더랜드’로 스웨덴 아이튠즈 K팝 차트 1위, 미국 아이튠즈 K팝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큰 성과를 기록했다.

알렉사는 2018년 넷브릭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듬해 ‘밤’ (Bomb)으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 그는 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국 빌보드의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7위에 올라 주목받았다. 알렉사는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준결승 진출 후 인터뷰에서 “나는 K팝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K팝의 ‘특별한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알렉사는 국내외의 높은 관심 속에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우승자 자격으로 5월 1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Billboard Music Awards)에서 무대를 꾸몄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이 시상식에서 K팝 가수가 공연한 것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알렉사가 두 번째다. 싸이는 2012년 전 세계를 휩쓴 ‘강남스타일’의 인기로 이듬해인 2013년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나서 트레이시 모건과 댄스 배틀을 보여줬지만, 정식 무대는 아니었다.



5

방송 스케줄을 마친 뒤에는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 3개 지역에서 팬 사인회를 진행했다.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가 각 주의 시청자 투표로 진행된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준 팬들을 위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알렉사는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 차례 팬 사인회를 진행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이번에도 자신을 향한 현재의 뜨거운 반응은 체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28일 소속사 지비레이블은 알렉사가 옴니버스 영화 ‘서울괴담’으로 배우로도 데뷔했다고 밝혔다. 전날 개봉한 ‘서울괴담’은 서울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이야기 10개를 담은 작품이다. 알렉사는 영화 속 SNS 인플루언서 세리를 연기했다. 세리는 방 탈출을 조건으로 1천만 원 협찬을 제안받고 이에 도전하지만, 곳곳에 도사린 위험한 장치에 목숨을 위협받는 인물이다. [\[장\]](#)

1. K팝 가수 알렉사의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우승 장면(미 NBC 방송 화면 캡처)
2. 무대에서 경연곡 ‘원더랜드’ 부르는 알렉사(미 NBC 방송 화면 캡처)
3. K팝 가수 알렉사(지비레이블 제공)
4. 영화 ‘서울괴담’으로 연기자로도 데뷔한 가수 알렉사(지비레이블 제공)
5. 알렉사, 미 NBC 경연 프로그램 출연. MC는 켈리 클라크슨·스눅독 MC(미 NBC 방송 화면 캡처)

충주 칠층석탑 · 고구려비 삼국시대 ‘각축의 역사’ 보여주는 중원의 랜드마크



1.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2. 2층 기단 위에 7층의 탑신을 올린 칠층석탑
3. 충주 고구려비
4. 2012년 문을 연 고구려비 전시관 내부

충 북 충주 지역은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
과 풍부한 철 산지라는 점 때문에 고대 삼국의 전략적 요충
지였다. 백제, 고구려, 신라 등 고대 삼국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
해 각축을 벌였다. 마한의 근거지였던 충주 지역은 백제 시대에
낭자곡성(娘子谷城)·낭자성(娘子城)·미을성(未乙省), 고구려 때에
는 국원성(國原城)으로 불렸다. 신라 진흥왕 때 국원소경(國原小
京)이 설치됐고,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 5소경(五小京)의 하나인 중
원경(中原京)으로 다시 바뀌었다. 중원경은 경주에 이은 사실상 제
2 수도였고, 통일신라는 이곳에 경주의 귀족과 부호의 자제, 가아
의 주민들을 옮겨 살게 했다.

치열한 전투 속에 백제와 고구려, 신라 순으로 주인이 바뀐 이
지역은 고려 태조 23년(940) 때 고을의 중심이란 뜻의 ‘충주’(忠
州)로 개칭됐다. 이런 역사적 배경 탓에 삼국시대의 문화유적이 곳곳
에 남아 있는데, 신라 석탑 중 유일하게 7층인 ‘충주 탑평리 칠
층석탑’과 한반도 내 유일한 고구려 비석인 ‘충주 고구려비’는 중
원문화의 대표적 유산으로 국보로 지정돼 있다.

높직한 토단 위에 세운 탑평리 칠층석탑

남한강은 계명산(鷄鳴山)과 충주 시가지를 품은 뒤에 ‘S’자로
굽이치며 중앙탑면 탑평리(塔坪里)를 지난다. 탑평리는 남한강을
끼고 서쪽에 발달한 충적 분지로, 마을 이름은 석탑과 관련이 있
다. 서기 8세기 후반~9세기 초에 세워진 탑평리 칠층석탑은 현존
하는 통일신라 시대 탑 중 가장 높고 크다.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3층 양식이 아닌 2층 기단 위에 7층의 탑신을 올렸고 그 위에 상
륜부를 구성했다.

탑 전체의 높이는 12.86m이지만 높직한 토단(土壇) 위에 우뚝
서 있어 실제 높이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사방이 탁 트인 토단
위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칠층석탑은 조성 시기와 배경 등
아무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석탑은 절의 법당 앞에 세워지는 것
인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2008년부터 3차에 걸쳐 칠층석탑
주변을 발굴 조사했지만, 사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
에 칠층석탑의 건립 배경을 두고 여러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신라 제38대 원성왕이 국토의 중앙 지점을 알아보기 위해 보폭

이 갈고 걸음을 잘 걷는 장정 두 사람을 한낱한시에 영토 남북 끝 지점에서 출발시켰더니 칠층석탑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고, 이에 두 사람이 만난 지점에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다.

또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한 뒤 부처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포용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해 세운 탑이라거나 충주 지역에 왕기(王氣)가 발흥하고 있어 탑을 세워 누르고자 했다는 설도 전해 내려온다. 원성왕 설화로 인해 정식명칭보다는 '중앙탑' (中央塔)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중앙탑 일대에는 1992년 사적공원이 조성됐고, 석탑 바로 옆에 충주박물관과 세계술문화박물관 '리퀴리움'이 들어서 있다.

고구려의 한강 이남 진출 입증하는 고구려비

중앙탑에서 3km 떨어진 입석마을의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서는 국내 유일의 고구려 석비인 '충주 고구려비', 중국 지린성 지안현의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황해남도의 안악 3호분과 개마무사 관련 자료를 통해 고구려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

제1 전시관은 충주와 입석마을의 역사와 지정학적 중요성, 고구려비 발견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입석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선돌 하나가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대장간 집 기둥으로 쓰기도 하고 백설기를 바치며 아들 낳기를 빌기도 하는 등 마을 수호석이라 여겼다.

선돌은 1972년 대홍수에 쓰러지기도 하면서 기나긴 세월 동안 고구려 역사를 간직한 채 서 있었다. 충주 지역 향토사 연구단체인 예성문화연구회가 1979년 우연히 발견해 학계에 제보했고, 학술조사단이 이름 없이 서 있던 비석의 글씨를 판독하면서 고구려의 비석임이 알려지게 됐다.

서양보다 1천 년 앞선 고구려 개마무사

제2 전시관에는 높이가 6m를 넘는 돌에 1천775자가 새겨져 있는 광개토대왕릉비 탁본이 전시돼 있는데 전시 공간이 좁아 일부 분만 펼쳐져 있고 대부분이 말려 있다. 이어지는 고구려의 정예병과 개마무사 코너에는 갑옷 입힌 말을 탄 개마무사의 조형물이 전시돼 있다. 개마란 기병이 타는 말에 갑옷을 입힌 것을 말하며, 개마에 탄 기병을 개마무사라 불렀다. 서양보다 1천 년이나 앞선 고구려 개마무사는 화살과 창에도 끄떡없는 승전의 수호신이었고, 광개토대왕 당시 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제3 전시관의 넓은 공간 둘레에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를 지키는 네 마리의 상징적인 동물인 청룡·백호·주작·현무가 그려져 있고, 전시관 한가운데 충주 고구려비가 서 있다. 고구려비는 광개토대왕릉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으나 크기는 훨씬 작다. 고구려비는 총 높이가 203cm, 비면 높이가 144cm, 너비



3



4

55cm다.

자연석을 이용해 비면을 갈고 4면 모두에 글자를 새겼는데 앞면과 좌측면에서만 글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방치한 탓에 판독이 완전치 못하지만, 당대의 역사를 고증하는 아주 귀중한 글자들이 많이 나왔다.

앞면 서두에는 '고려(고구려) 대왕(高麗大王)이 신라왕과 대대로 형제와 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이에 신라왕이 공손히 응했다'고 기록돼 있다. 고구려왕이 신라왕에게 의복을 하사했다는 내용과 함께 신라왕을 매금(寐錦)으로 불렀던 것에서는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라고 역사를 왜곡하는 지금,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구려비 전시관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답사지'라 할 만하다. 

박항서 감독 “어려워도 포기 말고 꿈 향해 도전해야”

호찌민한국국제학교서 한인 초·중등생 상대 ‘진로 멘토링’

베트남 호찌민시 소재 호찌민한국국제학교(교장 손성호)는 6월 2일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을 초청해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간담회’를 열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매직’으로 불리는 박 감독은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지난 5월 동남아시아게임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노래와 율동으로 베트남 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응원 영상을 만들어 보내자, 선수들과 함께 이를 본 감독이 보답 차원에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박 감독은 초·중등 학생 400여 명과 만난 간담회에서 본인이 선수 생활을 접고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일과 베트남 진출 등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등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



베트남 호찌민한국국제학교서 진로 멘토링 하는 박항서 감독

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그는 결승전을 앞두고 학생들이 보내준 응원 영상이 큰 힘이 됐다며 “어릴 적 비교적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축구를 시작했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며 “여러분도 고난이 닥쳐올 때 절대 포기 말고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 행사에 참여한 8학년 박찬호 군은 “박 감독이

대표팀을 맡은 후 베트남 축구 팬이 됐다”며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상징으로 자랑스러운 분을 만나고 격려를 받아 꿈만 같다”고 기뻐했다.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을 위한 교육부 인가 정규학교로 1998년 개교한 호찌민한국국제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이 2천여 명에 달하는 해외 최대 규모 한국학교다.

한국계 미 의원들,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억지력 강화 촉구

미셸 스틸 · 영 김, 미 국방·국무장관에 공동 서한 발송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5월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확장 억지력 강화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반도에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올해 들어 15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지난 3월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계 미셸 박 스틸(왼쪽)·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

이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이 없고 한국과 일본, 미군 기지에 대한 핵 탄두·단거리 재래식 탄두를 발사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동북아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미국은 동맹을 지원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확장 억지력이 한반도에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미셸 스틸, 영 김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다.

일본고려낭만학회, 고려 이주민 역사 알리는 역사강좌 개최

고구려 패망 후 일본 정착한 후손과 한일 교류사 소개

일본 속에 자리 잡은 고구려 후손의 존재와 의미를 알리는 역사강좌가 열린다. 일본고려낭만학회는 사이타마(埼玉)현 히다카(日高)시 소재 고마(高麗)신사에서 '고려군(高麗郡) 역사강좌'를 개최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고구려를 흔히 고려라고 부른다. 일본 고대사 사료인 속일본기(續日本紀)에 따르면 고구려 마지막 임금 보장왕의 아들인 약광(若光)은 고구려 사절단으로 666년 일본에 갔다가 2년 후 고구려가 멸망하자 일본에 남았고,



일본고려낭만학회의 '고려군 역사강좌' 안내 포스터

고구려 유민 등 도래인을 모아 716년에 관동 지방에 고려군을 세웠다. 고려군 지명은 현재 사라졌지만, 히다카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고마신사는 약광 왕자와 고구려 유민을 섬긴다.

한반도 출신 도래인 연구에 앞장서 온 이 학회는 '무사시구쿠분지(武藏國分寺) 건축과 고려군', '지역 문헌으로 살펴본 에도 시대의 고려군', '고려군 건립과 주변 지역', '고려군 시조 약광과 후손' 등을 주제로 6월부터 10월까지 강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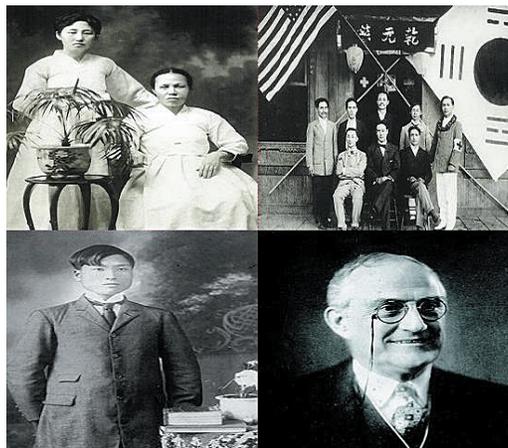
학회 관계자는 "고려군을 중심으로 일본 곳곳으로 퍼져나간 고구려 후손들이 다양한 씨족을 형성한 게 사실"이라며 "일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고구려 이주민의 역사를 소개해 고대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한일 교류의 의미를 널리 알리려고 마련한 강좌"라고 소개했다.

미 하와이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후손 4명 확인

독립운동 자금 지원한 문포라 지사 등... 광복절에 훈장 전수 예정

미국 하와이에서 활동한 한인과 외국인 독립유공자들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돼 보훈 혜택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국외 독립운동 사료 수집과 후손 찾기 일환으로 각종 자료를 입수해 확인을 거친 결과 하와이 이민 1세대인 문포라 지사 가족 3명과 천진화·김예준 지사, 미국 국적의 조지 맥쿤 지사 등 총 6명의 직계 후손 4명을 확인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문 지사는 1913년 하와이 최초의 여성단체인 대한인부인회를 시작으로 하와이 한인협회, 조선민족혁명단 등에서 여성 간부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문 지사의 딸 부부인 정월라·정원명 지사도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포라(오른쪽) 지사와 딸 정월라, 정원명(안열 가운데) 지사, 조지 새너 맥쿤 지사, 천진화 지사.(국가보훈처 제공)

보훈처는 1959년 보도된 정월라 지사의 사망사건 기사와 정원명 지사의 1차 세계대전 징집등록 카드 정보를 토대로 직계이자 문 지사의 외증손인 엘사 칼 씨를 후손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 자금 및 의거 자금을 지원했던 천진화 지사와 김예준 지사의 외손녀와 자녀도 각각 후손으로 확인됐다. 이번 후손 찾기 과정에서 외국인 독립유공자인 맥쿤 지사의 손자도 찾을 수 있었다. 맥쿤 지사는 1905년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 1919년 3·1운동 때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후원했다.

보훈처는 이번에 찾은 직계 후손 4명에게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하와이 현지에서 훈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절차를 거쳐 보상금 등 보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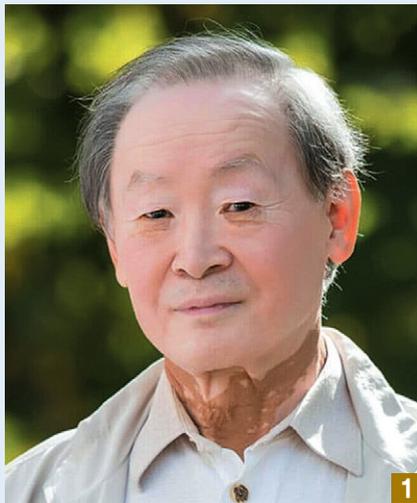
카자흐 고려인 원로 배우 겸 감독 이 올레그, 국가 훈장 수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현지 '고려극장' 터전으로 반 세기간 맹활약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원로 감독 겸 배우 이 올레그 샤프롤노비치 씨가 5월 4일 국가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으로부터 '바리스(Barys) II' 훈장을 받았다. 재외동포재단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80회 생일을 맞은 이 올레그 감독은 토카예프 대통령을 대리한 예르볼랏 도사예프 알마티 시장으로부터 훈장을 전달받았다. 도사예프 시장은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평생을 연극 예술에 바친 당신의 특별한 공로에 주목했다"면서 "당신의 독창적인 재능과 이타적 봉사 정신은 카자흐스탄의 연극을 최고의 수준으로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이에 이 올레그 감독은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의 스태프와 임원진을 대표해 훈장을 감사하게 받는다"면서 "1937년 이오시프 스탈린 체제에서 고려인들이 (옛 소련 연해주로부터 이곳으로) 강제로 이주당하던 혹독한 해에 카자흐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까지도 나눠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카자흐스탄의 공연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예술가' 칭호를 받은 이 올레그 감독은 1942년 5월 4일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에서 출생했으며 1969년 타슈켄트 에너지 기술대학을 졸업한 뒤 관련 분야에서 종사했다. 그러다 1971년 우연히 카자흐스탄



1



2

알마티의 극장에 들렀다가 연기에 매료돼 새로운 삶의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내 1975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건너와 카자흐 국립음악원 연기과를 졸업한 후 현지 고려인 극단인 고려극장에서 배우 겸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이 극장 수석 감독을 맡고 있다.

이 올레그 감독은 지금까지 40여 편의 연극과 영화, TV 시리즈 등에 출연해 생생하고 기억에 남는 연기 활동 펼쳐 현지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가 수석 감독으로 있는 고려극장은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삶의 터전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려인들의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카자흐인들의 명소가 되고 있다.

고려극장은 1932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단됐다. 해외 최초의 한국어 전문 연극 극장으로 해외 고려인 공연 예술을 대표해 온 기관이며 올해 창립 90주년을 맞는다. 이 극장은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 1937년 연해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할 때 카자흐스탄 우슈토베로 옮겨졌다. 1968년 공

화국 음악코미디극장의 지위를 얻어 알마티로 이전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다. **창**

1.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원로 배우 겸 감독 이 올레그 샤프롤노비치
2.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소재한 고려극장 전경

미국 뉴욕서 K 실감콘텐츠 체험 전시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최... 미 관련업계와 간담회도 열어

전시장 한복판에 놓인 가상현실(VR) 헤드셋을 머리에 쓰고 자리에 앉으니 곧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눈앞에 나타나 히트곡 'DNA'를 부르기 시작한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마치 공연장의 특수효과를 연상케 하는 밤하늘 별빛이 쏟아져 내리고, 양 옆과 바닥에서는 다양한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듯했다.

특히 BTS 멤버들의 발밑에서부터 시작된 다양한 특수효과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시청자의 주위를 감쌀 때는 마치 K팝 최고 스타들과 한 무대에 선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BTS의 공연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이 전시물이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첼시 인더스트리얼에 설치됐다. '한국: 입체적 상상'이라는 실감형 콘텐츠(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젝션 맵핑 등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 콘텐츠) 전시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BTS의 온라인 콘서트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토대로 만든 콘텐츠를 비롯해 모두 16종의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 한류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현지인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5월 14일까지 진행되는 뉴욕 전시의 사전 예약은 시작된 지 30분 만에 모든 표가 매진됐다. 이 행사는 5월 27일 워싱턴DC 주워싱턴한국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6월 9일까지 계속됐다.

언론에 공개된 뉴욕 전시에서는 영화 '기생충'의 대표적 공간인 저택 거실과 지



하실, 주인공 가족의 반지하 주택에 직접 들어간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도 이목을 끌었다. 대중문화 히트작뿐 아니라 한국의 미술 작가와 미디어아트 그룹,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든 다양한 콘텐츠도 미국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작품 '워터폴'로 화제를 모았던 디스트릭트가 '정글' 등 3점을 전시하고, 디자인 실버피쉬도 서울의 밤거리와 한글 간판을 보여주는 작품 '다이나믹 서울' 등 3점을 공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정조대왕 화성 행차와 금강산의 사계절을 파노라마 화면으로 구현했고, 이에승 고려대 교수가 전통 동양화

이미지와 현대적 입체 콘텐츠를 조화시킨 작품 '정중동 동중정'과 강이연 작가가 BTS 안무를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Beyond the Scene'도 전시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5월 5일 뉴욕 오크스튜디오에서 한국의 실감형 콘텐츠 기업, 창작자들과 미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 콘텐츠의 홍보와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강건택 연합뉴스 뉴욕 특파원

- 1. BTS 콘서트 가상체험하는 뉴욕커들
- 2.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한 서울의 밤거리를 지켜보는 뉴욕 커들
- 3. 뉴욕 첼시 인더스트리얼에 전시된 정조대왕 화성 행차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4~7일 인천서 개최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오는 10월 4~7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5월 4~6일(현지 시간) 사흘간 멕시코시티에서 올해 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대회는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1903년 1월 1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한인들의 미주 첫 이민 120주년을 기리고, 제16차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도 기념한다. 대회에는 각국 한인회장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올해 대회 공동의장인 유제현 유럽한인총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회장, 유영준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과 대륙별 총연합회장, 지역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대회는 공식적인 해외 첫 이민이 시작된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국 한인회장과 재외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코리아안페스티벌을 인천광역시에서 연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인천시와 체결했다.

동포재단, 제주지역 대학생들 해외진출 꿈 지원

제주도에 본부를 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제주 대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단은 5월 30일 제주대(총장 김일환)와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라 재단은 각국 재외동포 기업에 제주 청년을 채용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주대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청년들의 진로·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 멘토링도 추진한다. 재단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한상 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곤 이사장은 체결식에서 “제주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일환 제주대 총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11기 동포재단 대학생 봉사단, 제주 해녀 문화 알리기 캠페인

재외동포재단은 11기 동포재단 대학생 봉사단(OKFriends)과 함께 제주도의 해녀 문화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알리기 캠페인을 5월 28~29일 이틀간 제주 한경면 고산리 인근에서 진행했다. 동포재단은 제주 출신 전통 무용가 고춘식 씨와 고산어촌계 해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계 각국 출신 OKFriends 대학생들에게 제주 해녀에 대한 이해, 해녀들의 춤과 노동요에 얽힌 역사적 의미와 감동을 전수했다. 재단은 또 유네스코 제주도지질공원(차귀도·수월봉·산방산·용머리 해안 길)을 전문 해설사와 동행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제주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해안 길을 따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제주 바다 동호인들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도 벌였다.



제주 해녀 문화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알리기 캠페인 벌인 11기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봉사단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 쿠바한인후손회 등과 간담회 개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이틀간 쿠바를 방문해 쿠바한인후손회와 현지 한국문화 동호회인 아르코(ArtCor)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새 건물로 이전 예정인 '쿠바 한인 후손 문화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쿠바한인후손회(회장 안토니오 김),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회장 박래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한인 후손들의 현황 및 의견을 청취했고, 한인후손회 및 한인후손사회의 발전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회원 약 5천명으로 쿠바 내 최대 한국문화 동호회인 아르코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류를 활용한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1년이 쿠바 이민 100주년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쿠바를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방문이 쿠바 한인 후손사회에 대한 적극적 관심 제고의 기회가 되고, 쿠바 내 한류를 활용한 두나라 간 문화교류 확대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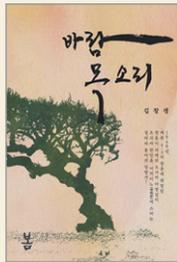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쿠바한인후손회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바람목소리 김창생 / 봄

저자는 지옥과도 같은 일제강점기 고통의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출신 재일동포 1세의 힘든 삶과 역사를 생생히 지켜본 재일동포 2세이다. 저자는 모국에서 눈을 감겠다는 일념으로 부모님의 고향 제주도로 돌아온 후 제주의 역사와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바람목소리>는 제주 4.3사건을 피해 도망친 재일 제주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사건을 피해 도망친 어린 쌍둥이 자매가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힘겨운 싸움과 망향을 뜨겁게 그려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후 돌아올 수 없었던 재일동포 1세들의 삶과 일제강점기 재일 한인사회의 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다.



순독이네 권소희 / 도서출판 도하

<순독이네>는 어지러웠던 1900년대 초기 하와이로 삶의 터전을 옮겨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민을 하는 과정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려내고 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뒤로한 채 이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이주의 험난한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타국에 도착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극복해나가며 새 삶을 일구어 나가는 초기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저자는 미주에 흩어져 사는 동포 중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저자는 1세대 한인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밑바탕이 되길 바라고 있다.





주사할린한인협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한인 1세 워킹 센터 개관

러시아 사할린에 남아 있는 한인 1세 노인들을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다. 주사할린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1세대 500여 명의 고령자가 마음 편하게 모이는 사랑방이자 노래 교실 등 취미 생활을 즐기도록 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5월 14일 밝혔다. 센터는 사할린주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인문화센터에 동지를 마련했다. 협회는 회의 탁자, 안마의자, 소파 등 집기를 완비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하고 노인들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한인 청년회가 맡는다. 한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다. 1세대는 일제강점기 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끌려와 해방 후 귀국길이 끊겨 잔류하게 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미 버지니아 로어노크 대학에 독립운동가 김규식 기념 표지판

미국 버지니아주 로어노크 대학에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을 기념하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5월 25일(현지 시간) 로어노크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계 역사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김 선생을 선정하고 김 선생이 공부했던 이 대학에 기념물을 설치했다. 표지판에는 선생의 영문 이름 'KIM KYUSIK' 및 생년월일과 함께 독립운동가로서의 생애를 소개하는 글이 적혀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김 선생은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 의 도움으로 도미해 로어노크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프린스턴대에서 영문학 석사를 취득했다. 귀국 뒤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침략을 규탄했고, 김구·이승만 등과 함께 임시정부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벌였다.



브라질서 한인 대학교수협회 출범

브라질의 각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 교수들로 이루어진 '브라질 한인 대학교수협회'가 5월 26일(현지시간) 출범했다. 협회는 이날 상파울루 총영사 관저에서 첫 모임을 하고 한·브라질 협력 지원, 한인 차세대들을 위한 멘토링, 양국 간 학술 교류, 산학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등 앞으로 진행할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항공우주, 의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분자생물학, 수학, 언론학, 언어학, 경영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수가 참여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정표 교수(브라질리아 연방대학·항공우주)는 “한인사회 발전과 한·브라질 협력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고려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조선통신사 기획전'

일본 도쿄 코리야타운에 있는 고려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기획전'을 개최한다. 5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어지는 기획전에서는 '260년간 지속한 평화의 교린 관계'를 주제로 조선통신사 교류의 역사와 각종 서적, 그림 등 관련 유물을 소개한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모형도 전시한다. 2001년 도쿄 신주쿠(新宿)구 오쿠보(久保) 거리에 문을 연 고려박물관은 한일 교류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전시회, 시민 강좌, 영화·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을 꾸준히 열고 있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 실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조선과 국교 회복을 희망하며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고려인단체, 대한적십자사와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위해 협력

사단법인 너머(이사장 신은철)와 대한고려인협회(회장 노송달) 등 국내 고려인 지원단체는 5월 9일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와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한국에 온 고려인 등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지원 항목 분석 ▲생계·의료 지원과 심리상담 ▲기부금 관련 행정 업무 수행과 전달 등을 할 예정이다.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고려인단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는 이날 현재 700여 명에 이른다. 추가로 한국을 찾기를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에서의 30년

1992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유학을 시작해 1997년 키이우 국립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얼마 후 나는 이 대학 동양어 대학장의 호출을 받았다. “현재 동양어 대학에 중국어·일본어·터키어 문학과가 각각 있는데 한국어 문학과를 개설할 예정이니 도와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요청을 승낙했고, 이후 이곳에서 지금까지 한국문학과 비교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무모하고 겁 없는 30대 젊은이였다. 매일 새벽 3~4시까지 교안을 짜고, 한국에서 출간된 교재를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뒤 저작권 승낙도 없이 컴퓨터로 내용을 타이핑한 후 출력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1997~1998년 한국어 문학과 입학생들은 30명쯤 됐다. 이들이 졸업 후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대학 및 각급 학교 교수나 교사, 외교관, 사업가, 공무원이 된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다.

키이우 대학은 2000년까지 매년 중국어 문학과 30명, 일본어 문학과 20명, 터키어 문학과 20명, 한국어 문학과 10명가량의 입학생을 받았다. 2003년 나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 단편소설과 시를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해 대학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이후에는 이곳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통해 교재와 사전, 연구용 서적 등을 지원받았고 자체적으로 한국어-우크라이나어 사전도 편찬했다.

2010년까지도 일본어 문학과나 중국어 문학과에 비하면 한국어 문학과는 존재감이 미미했다. 심지어 터키어 문학과에도 밀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2~2013년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여러 K-팝 가수들이 소개되며 한국어 문학과 입학생 수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일본어 문학과 입학생 수와 비슷해졌으



김석원
키이우 국립대 교수

며 2020년 들어서는 마침내 그 수가 역전됐다.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곳 학생들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세계적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 등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인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필자를 포함해 수백명이 난민이 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군인들이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씩 전사한다. 키이우 대학은 3월 한 달간 휴교령이 내려졌으나 4월 1일 총장 명의의 온라인 수업 재개령이 내려져 5월 온라인 강의를 했다.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 체코, 헝가리뿐만 아니

라 멀리 스페인 프랑스·독일·핀란드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과 ZOOM 수업을 했다. 전쟁 중이지만 한국문학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를 보면 힘이 난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영상 교수님과 옛 소련권 고려인 연구에 공동 참여한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 현재 구소련 지역에는 약 50만의 고려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10만 명), 카자흐스탄(8만 명), 우즈베키스탄(18만 명)에 많이 거주하는데 우크라이나에도 2만~3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인 1~2세대 중 연로한 분들이 많이 돌아가서 이제 극소수가 남아있다. 필자는 우크라이나의 고려인에 관한 책을 쓰려고 자료를 수집 중이다. 유명인은 물론 기구한 운명으로 우크라이나에 살게 된 평범한 분들의 발자취도 모아 역사의 증거로 남기려 한다. **창**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온라인 연수’ 신청하세요

전 세계의 훌륭한 청소년! 온라인으로 한국을 만나다!

2022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ONLINE

OKFriends Teens Camp On-line

okfteenscamp.com
한국의 문화, 역사, 전통, 언어, 미래에 대한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

대상/인원
재외동포 청소년 1,000명 / 재외한국 청소년 1,000명 (+ 신청자)

신청기간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 okfteenscamp.com 행사 신청

참가혜택
1. 재외동포 청소년
● 2023 오프라인 연수 신청시, 우선 선발
● 2023 오프라인 연수 참가시, 항공료 추가 지원
2. 국내 청소년
● 2023 오프라인 연수 신청시, 우선 선발
● 한류스타 콘서트 티켓, 전자제품 등 특별한 상품 증정

신청/문의 2022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온라인 [운영사무국]
Email : okfteenscamp@gmail.com
Tel : 82-2-2139-2420

연수내용
한국의 문화, 역사, 전통, 그리고 현재에 대한 흥미로운 유익한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통해 시청

주최 재외동포재단 주관 YBCA MBC

재외동포재단은 ‘2022년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온라인 연수’ 참가 신청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온라인 연수 일정과 지원 자격, 참가 가능 인원 수 등 자세한 내용은 동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okf.or.kr/homepage/customer/notice.do?mode=view&articleNo=1001027901&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사전 등록하세요... 8월 31일까지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사전등록이 시작됩니다!

2022년 11월 1일(화) ~ 11월 3일(목)
한상넷 (www.hansang.net)
+82-2-3415-0051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1월 1~3일 사흘간 울산광역시 울산전 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를 앞두고 사전 등록을 시작한다. 동포재단은 올해는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회를 연다.

사전 등록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한상넷’(www.hansang.net)에서 할 수 있다. 기업전시회 부스 참가 등록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대회는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스타트업 피칭 대회, 리딩 CEO 포럼, 한상 포럼,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한상 네트워킹 행사, 전문가 세미나,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현장 면접, 한상-청년 온라인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한다.

대회 관련 문의는 본부 사무국(+82-2-3415-0051~52)에 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세계한상대회’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통해서 하면 된다.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울산 대회 참가자들은 내년 미국 오투카운티 대회까지 연계된 비즈니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 한상과 국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 5월 10일: 한상 상반기 기업상담회 시찰
-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참석
- 5월 12일: YBLM 시티포럼 개최식 참석
- 5월 14~17일: 미주지역 국외 출장
- 5월 30일: 동포재단-제주대학교 MOU 체결식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